

We are a piece of work!
General Assembly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dianapolis, Indiana
Wednesday, July 22, 2009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7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We are a piece of work!
우리는 걸작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군가에게 질문 할 때 언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듣게됩니다. 당신과 함께 살던지, 당신을
사랑하던지, 당신과 일을 하던지 또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쉽게 어울릴
수 있다면 유쾌한 반응을 받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이고, 서로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요구를 바란다면 “Piece
of work- (당신은) 걸작이다” 라는 의견을 듣게 됩니다.

“piece of work – (당신은) 걸작이다”라는 표현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부담스럽다” 라는 비꼬는 식의 표현입니다. 남이 “당신 참
걸작이야” 말할때에는 당신과 함께 있기가, 작업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언급했듯이 언제 누구에게 (나/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이러한 호칭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걸작”이라는 호칭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단연히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당신은 crème de la crème(크렘 드 라 크렘) – Cream of the crop! (농작물 중의 크림) 한마디로, 진국이야!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창조되었을때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이 “참으로 걸작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에 하나님께서 “barah- 바라”하셨다고 합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barah – 바라”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인데 나중에 더 자세한 언급이 있겠지만, 그 의미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데에 국한 시킬 수 없겠습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만 함께 사용 되었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이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1 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6 은,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계, 은하계, 달과 별들이 모두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나 R. Kent Hughes 는 “전 우주의 조화의 놀라움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만물은 어느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새들과 나무들, 꽃들, 거대한 떡갈나무, 정복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맹렬한 폭풍우, 높고 길게 뻗은 솔나무, 가을에 따스한 단풍색 으로 정렬되어 있는 탐스러운 브래드 포드 배, 말채나무, 또는 봄에 피는 가을의 배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열매가 풍성한 체리 나무...

보라색 산의 장엄함, 해안선에 부딪치는 거대양의 파도, 더운 트로피칼의 햇빛에 반응하는 모래사장의 밝고 하얀모래들은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라며 우리를 부르는것 같습니다. 북극 곰들은 동굴에서 기어 나오고, 어미 사자는 혈기 왕성한 새끼 사자들을 돌보았고, 정글에는 고함 지르는 수컷 사자, 라이온 킹! 이 모든 자연의 장관과 놀라움은 정말로 가슴이 뛰게하고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 조차도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초 정상의 손놀림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의 창조가 언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창조가 완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자의 표현을 쓰자면, 케이크 표면에 크림을 바르는 마지막 작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초절정 보석의 작품 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을 위해 최고의 작품을 남겨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뚜렷이 구분 시키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이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섯째날, 인간이 창조 되던 날; 거룩한 협의가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들이 신성한 심의를 벌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쓰여진 말은 Adamah 라는 말입니다. 인류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할때 쓰이는 단어 입니다. 꼭 남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회적 관계 또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분이, 성 삼위일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한사람만 만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의 본질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커플로부터 놀랍게도 다양한 피부색, 문화, 인종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인류의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간에 관계를 이루며 살기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존재들 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다양함에 힘겨워하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차 확실치 못할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다양함이 우리의 삶을 흥분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졌습니다. 성경 구절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서, “형상”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이고, “모양”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성격이 있고, 생각, 판단, 계획, 분별, 결정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이들의 일에 동조해 주고, 사랑하고 사랑 받고,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영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 이야기 하고, 가장 깊은 생각, 필요 사항, 관심사, 걱정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이러한 특권을 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곡가에게 펜을 들게 한 것 같습니다.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뢴줄을 모를 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숙고 끝에 만든신 것 뿐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신 디자인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드실때 그분의 손에 흠을 묻히시며 직접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 장 7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때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때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지으시다는 뜻으로 쓰인 “바라-bara”라는 단어는 미술가의 작품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다지는 것 같이 무언가 “새롭고
완벽한”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부터 사람을
창조하신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그분의 걸작입니다.
나는 시편의 작가 다윗의 하나님이 그를, 사실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시적으로 한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139 장 13- 14 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의 삶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신하지 못할때에 확신을 갖게할 만한
참으로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신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께 자신감과 확신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떠한 선한 일이 있게 하실까 하는 의심이 생길때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평탄치 못하고
어느 누구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좋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나에게 무엇인가 근본 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던지 아니던지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나 우리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다른 누구로 부터 느낀 소외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부터 무관심, 입증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부터 심한 비판, 아직도 싱글로 있다는 사실 - 한번도 결혼을 안했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되었거나, 승진에 안되었다든지, 당신의 직업을 잃었다든지, 당신의 집의 저당금을 지불하지 못해 집을 잃게되었다든지, 당신의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다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속을 썩힌다든지, 당신의 삶이 당신이 기대했던것 같이 되어 가지 않는 다든지 -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내게 뭐가 잘못됐을까? 난 해도 안되는가? 똑똑하지 못한가? 난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창조 되었을때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가 특별한 뜻과 이유로 인한 맞춤 주문으로 만들어 졌고, 최고의 작품이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신과 같은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 찬송한 이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훌륭한 자수품 같이, 손으로 뜨개질하여 만든 옷 같이, 여러분 속의 본질이 한올 한올 엮여서 완전한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당신의 유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뜨개질한 작품은 하나뿐입니다. 복제될 수 없지요. 당신은 엄청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 감정적인, 지적인, 영혼적인 부분까지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역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과 일치합니다. 지적인 면으로는 크고 작은 어떠한 작업과도 일치하며, 이루 측정 할 수 없는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600-700 가지의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쉽게도 이들이 얼어버린 자산이 되고 만다고 연구인들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있던간에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잠재력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능력과 재능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분이 허락하신 잠재력 이하를 살아가는데 만족해하는 편하고 나태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을 영화롭게 하기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묘막측이란말로 쓰인 히브리어 yare'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겁이

나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확실해 합니다. 당신이 둘러싼 상습적인 것들 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 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룰수 있는것조차도 시도하기를 두려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능력보다 못한데에서 그만두고 맙니다. 명백히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맹렬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할만한 존재로 만드신것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놀랍고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의 경이롭다는 말은 “현저히 구분되는, 비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가운데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코에 불으시고, 그의 지으신 작품을 살아있는 존재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성한 심사숙고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다른 모든 작품들의 통치권을 갖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완성되었을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세상을 사람에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키는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말 그대로 동산을 “섬기며”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강들이 흐르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 보기에 맛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상태를 유지주고 보장해 주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들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과실을 따먹을 시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한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람은 그 시험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에대한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은 인간의 존재의 영혼적, 도덕적, 사회적, 관계적 그리고 최후로 육체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 죄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받게되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산 산 조각이 나버리게 했습니다. 온전했던 세상이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알고 계시고 이미 잃게될 인류를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작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인들에 편지한 두번째장에 나와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곤두박질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높고 높은 곳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만드신바라”라는 뜻으로 쓰여진 헬라어 “poiema 포이에마”는 예술 작품, 최고 걸작이라는 뜻으로 위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예술가의 손작업으로 지으심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barah 바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F.F. Bruce 는 위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걸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위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작품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바라 ...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자니 .. 하나님의 최고 작품, 하나님의 가장 초절정 작품인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번의 창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났고 재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 장 15 절에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처음과 두번째 태어남을 그리스도에게 빚진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로 지으심을 받게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을 망쳐놓았지만 예수님께서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빚진 지독한 죄의 값을 치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두번째 창조하심을 입은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처음 창조의 작업을 하신것과 같이 두번째 창조의 작업에도 연합하셨습니다. 두번째 창조에는 그분들의 모든것을 들였습니다. R. Kent Hughes 는 “죽은자들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신 비할데 없는 힘” 을 들여야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번에 생기를 생명이 없는 존재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우리를 재생시키신 분, 우리를 죽은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우리에게 너무나 풍부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완성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죄를
짓기 전의 더 훌륭했던 작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여전히 작업중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바울은 이를 확실히 하기위해,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최초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동산에서 “일”을 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 세대를 “섬기고”
관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이룬 일들을 통해 구원 받게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 장 14 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다른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위해,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하기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망가진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매일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숨쉬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 불경기로 인해 직업을, 집을, 자존심을 빼앗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4 천 7 백만명의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이 살아가고 아플만한
여유도 없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1 천 3 십만 가정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위해 분투중입니다.

우리는 조각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률 상승, 다툼의 증가로
인간 관계는 충돌이 되고, 아이들의 생활은 저점 소모품이 되어가고, 폭력은
서로의 다름을 해결하고 불만을 다루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곳으로부터 평화를 찾고, 사랑을 찾고, 의미없는 것들로
부터 의미를 찾고, 쉼이 없는 삶을 살며, 쓸모 없는 일들에 삶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만족을 찾고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사회적 위치에서,
짚강의 직위에서, 더 커다란 집에서, 더 좋은 차에서 찾고 있지만 결국 실망만
찾게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모습으로 생긴 구멍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의 고달픔의 끝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난이한 질문의 답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의 필요를 위한 응답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을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려하지 않을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망가진 삶,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때 지속적으로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그리고 공동의 세계에 필요를 위한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제자회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의 유용성을 문제시하며 교단 멤버들의 노후화와 경기의 침체로 인해 더욱 심해진 회원 및 자원의 감소로 인해 제자회로서 소속감이나 자부심에 확실함이 없어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주름잡고 정교한 통신 매체의 신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충분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 보게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조각난 세상을 하나로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여기 주님의 만찬에 환영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숫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숫자로 무엇을 하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방회가, 우리의 총회의 크기가 얼마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힘을 재편성하고, 회원들의 재능과 은사들을 채택하고, 우리의 안락의 구역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있는 그 길가로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나가야합니다.

운동이란 바로 그런것입니다. 정체해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갇혀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흐르는 것이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운동은 해방시킵니다, 운동은 부족한 것들을 채웁니다, 운동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과 같은 성령이 사로잡고 성령으로 가득차게합니다. 운동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조각난 세상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모든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눠 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회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말하는 제자회가 바로 누구인지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